

2026년 6월 둘째 주, 구역 공과

22 찾아오시는 사랑

-요한복음 4장 1~6절(신약 147)-

예배순서

• 찬송: 299/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301/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 속으로

인생을 길 찾기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을 찾아, 행복을 찾아, 성공을 찾아 부단히 길을 떠난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길을 잃고 상처받으며 결국 허무함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서곤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길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정확히 직진해 오시는 완벽한 사랑이 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랑은 _____을 넘는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혐오하여 굳이 돌아가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셨다.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 4:4)라고 기록한다.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수백 년간 쌓인 역사적 배신감과 혈통적 결벽증, 종교적 증오로 인해 ‘오염 구역’과 같았다.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라도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견고한 혐오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셨다. 주님께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이나 편견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방이 처한 혐오와 고통의 현장까지 직진하는 용기이며,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은 바로 그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 사랑은 _____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랑에는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요 4:6)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먼지 나는 길을 직접 걸으셨고, 기진맥진하여 털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피곤함을 감수하셨다.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굳이 발이 부르트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이다. 대리인을 보내거나, 꿈과 환상 중에 계시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대리인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다. 직접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빛 아래를 걷고 또 걸으셨다. 진짜 사랑은 ‘대충’이 없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는 대충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 잠도 못 자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 경력 단절에도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에 힘쓴다. 이유식 성분 하나하나를 따지고 밤새 아이를 돌보고, 학원 스케줄표를 꿰고, 늘 아이를 생각한다. 사랑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희생을 감수하게 된다. 그 피곤함은 사랑의 증거이자, 한 영혼을 결코 대충 대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유난스러운 결단’에서 나온 결과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다.

3. 사랑은 _____

진짜 사랑은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린다. 예수님은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마리아 여인이 오기를 우물가에서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계셨다. 우물은 성경에서 만남과 언약의 상징이다.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이다 (창 24장).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이다 (창 29장). 모세가 아내 십보라는 만난 곳도 우물이다 (출 2장). 이처럼 우물은 만남과 결혼을 상징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났다. 여인은 그저 목마름을 채우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나왔지만, 주님은 신랑처럼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제 앞가림을 하기까지 수십 년의 지독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은 누군가의 기다려주는 사랑을 먹고 비로소 ‘사람’이 된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 와 계셨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지 묵묵히 그 뜨거운 띄약별 아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주님이 세팅해 놓으신 ‘은혜의 알고리즘’ 덕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낸다.

나눔과 기도

-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음을 느낀 적이 있는가? 주님처럼 지금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인내하며 더 기다려주어야 사람이 있는가?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 온 세계 열방(선교사님, 전쟁)을 위해 기도하자.